

제5차 임권의 하프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 국어 영역 ·

정답

1	①	2	⑤	3	②	4	④	5	④
6	⑤	7	③	8	④	9	④	10	③
11	①	12	②	13	③	14	⑤	15	⑤
16	⑤	17	④	18	④	19	③	20	⑤
21	④	22	④	23	③	24	②	25	①

해설

1. [출제 의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① 이 발표의 주요 내용은 인공 지능이 창작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이에 대해 청중이 관심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② 발표자가 발표를 시작할 때 발표 순서를 안내하지 않았다. ③ 발표자가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의 유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④ 발표 초반부에 발표자가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청중의 답변을 듣고 있지만 그를 통해 발표한 내용을 점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인공 지능의 변화 과정, 그리고 각 과정에 수반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2. [출제 의도] 듣기 전략 파악하기

⑤ 학생 2는 발표에서 생긴 궁금증이 없으며, 학생 3은 자신이 궁금했던 것을 발표를 통해 해결하고 다른 궁금증을 해결한 자료를 찾아보고자 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 자료를 수집할 지를 생각하며 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학생 1은 발표내용이었던 인공 지능이 만든 예술 작품의 창작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② 학생 2는 과거 자신이 본 인공 지능과 관련된 뉴스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발표가 그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③ 학생 3의 첫마디는 학생 3이 관심 있는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학생 1은 자신이 읽었던 책을, 학생 2는 자신이 보았던 뉴스를 떠올리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3. [출제 의도] 자료 활용 방안 파악하기

② <자료2>는 소설을 쓰는 데 필요한 능력을 제시하고 있다. [B]에서 인공지능이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인공 지능의 현재 창작 수준을 판단하여 그 한계를 제시하는 데에 <자료 2>가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자료 1>이 인공 지능이 정보를 인식하는 단계를 구분하고 있고, [A]에서 해당 자료가 쓰였다고 볼 수는 있지만 각 단계 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③ <자료 1>과 <자료 2>는 인공 지능이 창작 영역을 빠르게 확대해 나갈 가능성을 다루고 있지 않다. ④ <자료 3>은 저작권법 상 인간의 창작 행위만이 저작물로 보호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저작물 이용 목적에 관한 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인공 지능의 창작물이 인간이 작업한 결과라는 내용은 [C]에서 찾아볼 수 없다.

4. [출제 의도] 글쓰기 계획 파악하기

④ 명주인과 마을사람들의 협상과정에 대해서 언급된 내용은 없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마을 사람들이 발이나 과수원에 갈 때 주로 이용하는 도로의 통행을 가로막는 울타리가 설치되어 명주인과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이 생겼다고 언급되었으므로 ㉠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② 2문단에서 명주인은 자신의 사유재산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간과할 수 없어 통행을 막았다고 주장하므로 ㉡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마을 사람들은 10년 가까이 공장으로 사용되어 온 도로를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

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⑤ 5문단 마지막 문장에서 지방 자치 단체가 갈등의 중재자로서 조율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언급이 있으므로 ㉤을 반영하였다고 할 수 있다.

5. [출제 의도] 고쳐쓰기 전략 파악하기

④ 학생의 초고에는 마을 사람들이 입는 경제적 손실에 한정하여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고쳐 쓴 부분을 보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입게 될 피해가 한 측면으로 부각되어있으므로 다른 측면에서 입게 되는 피해를 추가하여 문제 해결의 시급성이 강조되도록 고친 것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6. [출제 의도] 비판적인 관점에서 글쓰기

⑤ [A]에서는 사익과 공익간의 대립에서 공익을 우선시하는 관점이 드러난다. 한편 <보기>에서는 피해가 법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사익을 우선시하는 관점이다. 따라서 <보기>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한다면, 공익을 위해서라는 이유에서는 명주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고, 피해가 법적으로 증명되어야 제한 가능하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7. [출제 의도] 음운 변동의 조건 파악하기

③ 비음화, 거센소리되기,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 일어나는 된소리되기는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도 규칙성 파악이 가능하다. ⑤는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 일어나는 된소리되기이고, ㉠은 거센소리되기이므로 둘다 음운과 관련된 조건만으로도 규칙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오답 풀이] ① 장음에 뒤에 비음이 오거나,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 비음이 오면 음운변동이 발생한다. ② 규칙적인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음운 변동이 일어난 발음이 표준발음으로 인정된다. ④ 거센소리되기는 음운과 관련된 음운변동일뿐, 형태분석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⑤ ‘똥’은 ‘똥’-‘가’ 어간, ‘-’이 어미이다. 어미의 첫소리가 예사소리에서 된소리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8. [출제 의도] 단문 맞춤법 이해하기

④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 나오는 예사소리는 반드시 된소리로 발음되므로 ‘곡수’도 표기에 된소리를 적지 않아도 두 번째 음절 첫소리로 된소리로 발음된다. 따라서 된소리를 밝혀 적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이므로 된소리를 밝혀 적는 것이다. 두 모음 사이에 예사소리가 오면 예 없이 된소리가 되지는 않는다. ② 예사소리인 파열음 뒤에 오는 된소리되기는 규칙적인 음운변동이다. ③ ‘딱딱’으로 적더라도 발음은 여전히 [딱딱]이다. 하지만 제 13행에 따라 딱딱으로 적는다. ⑤ ‘잔뜩’은 용언이 아닌 부사이며, 제 5행의 2에 따라 된소리를 밝혀 적는다.

[9~13] (인문) 추병완 의, 『윤리교육연구』

9. [출제 의도]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④ ‘자기 조절’ 개념을 중심으로 ‘사회 인지 이론’과 ‘자기 통제 이론’을 소개한 후 ‘비도덕적 행동’이라는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10. [출제 의도] 핵심 개념에 대한 세부 내용 파악하기

③ 1문단의 ‘자기 조절은 목표 달성을 위해 ~ 자기 조절의 실패를 의미한다.’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를 한 것 자체가 자기 조절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의 ‘바우마이스터는 그중 에너지의 양이 ~ 특히 에너지의 양적인 측면을 중시한다.’에서 바우마이스터가 에너지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의 첫 문장에서 ‘밴두라가 인간이 자기 조절 능력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의 ‘밴두라에 따르면, 인간은 ~ 자기 조절에 실패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에서 자기 조절에 실패한 이유로 도덕적 정당하나 책임 전가 등을 제시한다. ⑤ 4문단에서 ‘밴두라’는 인간이 자기 조절을 하여 도덕적 표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자기 조절의 성공에 해

당한다고 말한다.

11. [출제 의도] 두 개념의 공통점 파악하기

① 4문단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은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경험을 통해 신장되며, 자기 조절의 자동화는 자신의 목표 달성 경험을 포함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 자기 조절의 자동화를 달성한다. 따라서 ㉠과 ㉡은 모두 개인이 지향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서술을 적절하다.

12. [출제 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② [A]에 따르면 P 씨가 놓여 있는 근무 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자기 검열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해당하고 이는 자기 판단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① [A]에 따르면 자신이 다짐한 대로 운동을 한 후에 느끼는 만족감은 자신이 한 행동 이후에 자신에게 부여하는 정서적 힘으로 자기 반응으로 볼 수 있다. ③ [A]에 따르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판단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④ [A]에 따르면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와 관련된 개인적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행동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라는 자기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A]에 따르면 선입견이나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자신이 지향하는 목표와 자신의 상황 행동을 관찰하는 것은 자기 조절의 첫 단계인 자기 검열이므로 P씨가 자신의 편식하는 행동을 냉철하게 관찰하는 것은 자기 조절의 첫 단계에 해당한다.

13. [출제 의도]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③ 3문단에서 바우마이스터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오답 풀이] ① 4문단에서 ‘밴두라’는 인간은 도덕적 정당하나 책임 전가와 같은 자기 면책적 사고로 인해 자기 조절에 실패한다고 주장하므로 적절하다. ② <보기>에서 같은 모든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규범을 배웠다. 이는 4문단에서 ‘밴두라’가 말하는 교육들의 사회화를 통해 내면화한 보편적인 도덕 규범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인간의 에너지를 유한하기에 자기 조절과역에서 에너지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면 자기 조절 능력이 감소한다고 한다. <보기>에서 음은 장악해 자신의 실수를 털어 놓는데 관한 에너지를 소모하였고 이후 동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은 자기 조절 실패로 이해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바우마이스터는 자기조절은 개인의 목표 성취와 관련된 개인적 표준이 포함되고 한다. 따라서 음이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던 것은 보편적 도덕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개인적 표준을 지닌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4~17] (고전소설) 작자 미상, 『숙향전(淑香傳)』

14. [출제 의도] 작중 인물들의 태도 파악하기

⑤ 숙향은 이선이 매항과의 혼사를 거절하면 신하로서의 도리가 아니고 매항은 이선이 아니면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니 이선이 혼사를 거절하면 독수공방할텐데 이렇게 두는 것도 사나이 대장부가 할 일이 아니라 하고, 이선이 혼사문제도 원한을 살까 걱정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매항이 다른 집안과 혼인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두 남편을 둘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지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② 황제는 처음에는 이선의 편에서, 나중에 양왕의 편에서 일을 진행하였으며 갈등을 해결해주지도 못했다. ③ 양왕은 이선이 병을 핑계로 혼사를 거절함으로써 받아들이고 있다. ④ 위왕이 혼사에서 이들의 의사를 중요시 여기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15. [출제 의도] 일정한 준거에 의해 작중 인물의 행위 비판하기

⑤ 양소유는 혼사를 거절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담아 상소문을 올렸고 감옥에 갖게 되었다. 반면 이선은 혼사를 피하기 위해 병을 핑계로 대고 있다. 따라서 양소유는 이선에게 병을 받더라도 자신의 뜻을 밝혀야 한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이선은 혼사가 진행되었을 때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황실의 부마가 되는 길을 마다하고 있으므로 이

것을 사유가 불순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황제의 명이 옳지 않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선은 매항과의 혼사를 반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이다. ④ <보기>의 양소유 역시 황제의 명을 어기고 있으므로 이 역시 불충이다. 따라서 양소유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16. [출제 의도] 대화에 나타난 특정 파악하기

⑤ 이선이 혼사를 거절하려는 이유를 상항을 가정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자신의 뜻을 우회적으로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해당 대화는 청병하는 이유를 밝히며 속항을 납득시키고 있는 발화이다.

17. [출제 의도] 예상되는 줄거리의 근거찾기

④ 태몽에 나타난 선관이 준 대화꽃을 메향으로, 오얏나무를 이선으로 보면 지엽을 지식으로 볼 수 있으므로 메향 이 선과 혼인하여 아들과 딸 여섯을 두고 다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를 납득할 수 있다. 또한 메향은 자라리 들췌 부인이 될지언정 이선이 아니면 시집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려 결국 이선과 혼인하겠다고 고집을 부려 결국 이선의 들췌 부인이 되었으며, 양왕이 메향의 혼사를 거절한 이선에게 양심을 품고 이선이 위험한 임무를 맡게 하였다는 이야기도 납득이 가능하다. 하지만 위왕이 혼약을 어긴 것에 대해 양왕에게 사과한 일은 보기의 이야기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18~20] (현대시) 한용운, 「수의 비밀」, 문정희, 「절레」

18. [출제 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④ (가)에서는 '나의 마음은 수놓은 금실을 따라서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를, (나)는 '추억을 털며'와 '아름이 출렁거리'를 보면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가), (나) 모두 명암의 대비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 ② (나)는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가)는 수미상관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③ (가), (나) 모두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가), (나) 모두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이동을 찾아볼 수 없다.

19. [출제 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③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은 화자가 대상의 부채를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주체적 선택과 극복의지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 풀이] ①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는 <보기>에서 말하는 화자가 일상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깃다가 놓아두고 깃다가 놓아두고'는 일상적 행위인 깃는 행위를 반복하면서도 그것을 종결짓지 않으며 임의 부채가 환기되는 상황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맑은 노래가 나와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는 '나의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수를 놓는 과정을 통해 자기 정화가 동반된다고 볼 수 있다. ⑤ '깃고 싶어서 다 깃지 않는 것일 나다'에는 임의 부채가 환기되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20. [출제 의도] 시어의 의미 및 기능 비교하기

⑤ [C]의 '말을 잃어갔다'는 과거의 아픔을 의미하고, [D]의 '무성한 사랑'은 과거의 아픔을 '예쁘고 뽀족한 가시로 매달고' 성숙해진 사랑을 의미한다. 따라서 [D]로 인해 슬퍼하는 화자의 모습이 [C]에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 풀이] ① [A]의 '서 있고 싶다'는 [B]와 [D]에서도 반복적으로 서술되어 간절함을 부각하고 있다. ② [A]의 '그리운 가슴'은 과거의 그리움을 의미하고, [D] '꿈결'은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느낌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B]에서 '꽃이 되었을 이름'을 통해 꽃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화자의 아쉬움을 알 수 있고, 이것이 [D]에서 '예쁘고 뽀족한 가시로 꽃 속에 매달고' '서 있고 싶다'를 통해 성숙한 모습의 꽃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C]의 '우는 날이 많았었다'는 추억 속 과거의 '그대 사랑하는 동안'에 일어난 일로 [B]의 '추억' 속의 화자의 모습에 해당한다.

[21~25] (과학) 강신성 의 옮김, 「인체생리학」

21. [출제 의도] 글의 내용 파악하기

④ 호흡과 관련된 근육들의 내부구조에 대한 서술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 풀이] ① 4.5문단에서 확인가능하다. ② 1문단에서 '인간이 생명을 ~ 이 과정을 호흡이라고 한다.'에서 호흡의 정의를 알 수 있고, 2~3문단에 걸쳐 호흡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③ 4문단 전체에 걸쳐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⑤ 5문단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2. [출제 의도] [출제 의도] 글의 세부 내용 파악하기

④ 3문단의 '호흡은 ~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횡격막에 의해 복부와 완전히 분리된다.'를 통해 뼈와 늑간근이 아닌 횡격막에 의해 복부와 분리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① 3문단의 '이때 안쪽 흉막은 폐에 붙어 있고'라는 부분을 통해 폐가 두 개의 흉막 중에 안쪽 흉막과 붙어있음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서 폐는 지문의 [그림]처럼 흉막강에 둘러싸인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문단에서 늑골을 비롯한 뼈와 늑간근 등의 근육으로 이루어진 흉곽이 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코와 입을 통해 유입된 공기가 기관지를 거쳐 폐포로 들어가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기관과 기관지를 거쳐 이동하는 공기가 체온만큼 따뜻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23. [출제 의도] 글의 핵심 정보 이해하기

③ 7문단에서 흉기에서는 흉곽의 확장, 흉막강 부피 증가, 흉막 내압 감소, 경폐압의 증가, 폐의 부피 증가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호기에서는 흉곽의 축소, 흉막강 부피 감소, 흉막 내압 증가, 경폐압 감소, 폐의 부피 감소가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㉞은 흉기와 호기가 전환되는 지점이므로, 폐의 부피가 가장 커진 지점이며, 흉막 내압이 가장 낮은 지점이다. ㉞은 호기의 중간 지점이므로 횡격막 이완과 근육 움직임에 의해 흉곽이 축소되고 흉막강의 부피가 줄어들고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㉞은 ㉞보다 흉막강의 부피가 큰 지점이다. 즉, 흉막 내압은 낮지만, 흉막강의 부피는 큰 지점이다.

[오답 풀이] ① ㉞은 폐포압이 0인 지점이다. 따라서 폐포압과 대기압이 동일하여 공기 흐름이 없는 지점이다. 7문단의 '흉막강의 부피가 늘어나 흉막 내압은 공기의 흐름이 없을 때보다 조금 더 낮아지게 된다.'에서 ㉞보다 흉막 내압은 높고 흉막강의 부피는 작은 지점임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㉞은 흉기의 중간 지점이므로, 폐의 부피가 증가하는 지점임을 알 수 있다. 흉기에서 폐의 부피 증가는 흉곽의 확장을 의미하고, ㉞은 흉곽이 계속 확장하고 있는 지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흉막 내압은 흉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낮아지므로 ㉞의 흉막 내압이 ㉞보다 높다. 그리고 7문단의 '폐의 부피가 커질수록 폐로 유입되는 공기의 총량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에서 ㉞이 ㉞보다 유입된 공기의 전체량이 더 많은 지점임을 알 수 있다. ④ ㉞은 호기의 중간 지점이므로 흉곽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지점이다. ㉞은 흉막 내압은 계속 높아지는 지점이지만, ㉞은 흉기의 중간 지점이므로 흉막 내압이 계속 낮아지는 지점이다. 따라서 ㉞이 ㉞에서보다 흉막 내압이 큰 지점이다. 그리고 흉기에서는 흉막강의 부피가 증가하지만, 호기에서는 흉막강의 부피가 감소하므로 ㉞이 ㉞에서보다 흉막강의 부피가 작은 지점이므로 적절하다. ⑤ ㉞은 호기의 중간 지점이므로 폐에서 체외로 공기가 이동하는 지점이며, 호기에서는 흉막 내압이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높아지므로 ㉞에서보다 흉막 내압이 낮다. 또한 ㉞에서부터 호기의 끝 지점인 ㉞까지 폐의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㉞은 ㉞에서보다 폐의 부피가 더 큰 지점이므로 적절하다.

24. [출제 의도] 내용 추론하기

② ㉞은 흉기가 호기로 전환되는 지점이고, ㉞은 호기의 중간 지점이다. 따라서 ㉞에서 ㉞로 호흡이 진행될 때에는 호기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7문단에서 '호기는 흉기와 순서는 동일한데, 횡격막의 변화와 늑골의 이동 방향은 반대여서 흉곽의 축소가 진행되면서 시작된다.'고 하였으므로 횡격막은 이완되어 위로 움직이고, 늑골은 아

래쪽과 안쪽으로 움직일 것이다.

25. [출제 의도]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하기

① <보기>의 [사례]의 '흉막강에 지속적으로 외부 공기가 유입되어'라는 부분과 [학생의 반응]의 '쪼그라들었던'에서 흉막강 내에 공기가 들어가 폐가 수축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흉막 내압이 대기압과 같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수축된 폐를 다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흉막강 속 공기를 배출하여 '폐를 확장시키려는' 경폐압을 증가시키면 된다. 따라서 ㉞은 대기압, ㉞은 경폐압이 들어가야 한다.